사고로 세상 떠난 조선대 몽골 유학생 어머니의 손편지

유족, 아들 사망에도 코로나19로 입국 못해

조선대, 사고처리 · 장례절차 각별한 지원

조선대학교가 최근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몽골인 유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손편지를 받았다.

15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한국어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몽골인 유학생 툽신바야르 학생이 지난 4월 오토바이 사고(단독사고)로 크게 다쳤다.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튿날인 5월1일 숨을 거뒀다.

아들의 급작스런 죽음에 몽골 유족들은 입국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무기한 결항되면서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서울에 거주 중인 툽신바야르 학생의 사촌누나가 사고와 사망에 따른 모든 절차를 유족으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조선대는 툽신바야르 학생이 사고를 당한 시점부터 교통사고의 사고 처리와 치료 절차를 도왔다.

학생 사망 이후에도 조선대는 유족이 입국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 장의차와 화장, 통역비용 등을 지원했다. 영락공원에 안치된 고인의 유골은 항공편이 재개되면 유족이 현지로 운구할 예정이다.

조선대는 몽골인 유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열어 고인이 된 툽신바야르 학생을 애도하고 재발방지를 교육, 당부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몽골에서 전해들은 툽신바야르 학생의 어머니는 조선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는 손편지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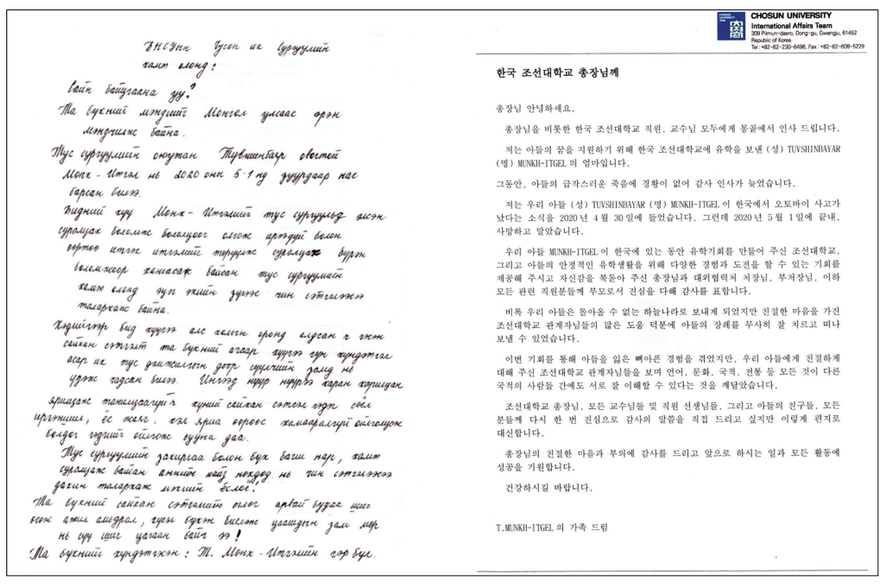
그는 "아들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가 늦었다"면서 "비록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친절한 마음을 가진 조선대 덕분에 아들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대 관계자들을 보며 언어, 문화, 국적 등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간에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감사의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편지로 대신한다"고 덧붙였다.

편지를 받은 민영돈 총장도 유족에게 답장을 보냈다.

민 총장은 "미래가 밝은 청년이 변고를 당해 매우 안타깝다"며 "세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부모님이 바로 한국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대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해당 학생의 사고처리와 장례절차 등에 각별한 지원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업과 복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달했다.



CHOSUN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Team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61452
Republic of Korea
Tel: +82-62-230-6498, Fax: +82-62-608-5229

한국 조선대학교 총장님께

총장님 안녕하세요.

총장님을 비롯한 한국 조선대학교 직원, 교수님 모두에게 몽골에서 인사 드립니다.

저는 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조선대학교에 유학을 보낸 (성) TUVSHINBAYAR (명) MUNKH-ITGEL의 엄마입니다.

그동안, 아들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성) TUVSHINBAYAR (명) MUNKH-ITGEL이 한국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난다는 소식을 2020년 4월 30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1일에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 MUNKH-ITGEL이 한국에 있는 동안 유학기회를 만들어 주신 조선대학교, 그리고 아들의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신 총장님과 대외협력처 처장님, 부처장님, 이하 모든 관련 직원분들께 부모로서 진심을 다해 감사를 표합니다.

비록 우리 아들은 돌아올 수 없는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지만 친절한 마음을 가진 조선대학교 관계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아들의 장례를 무사히 잘 치르고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들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겪었지만, 우리 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신 조선대학교 관계자님들을 보며 언어, 문화, 국적, 전통 등 모든 것이 다른 국적의 사람들 간에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선대학교 총장님, 모든 교수님들 및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편지로 대신합니다.

총장님의 친절한 마음과 부의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과 모든 활동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T. MUNKH-ITGEL의 가족 드림

조선대 한국어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몽골인 유학생 툽신바야르 학생이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가운데 학생의 어머니가 조선대에 보낸 감사의 편지 원문(왼쪽)과 번역본. 조선대는 코로나19로 국내에 입국하지 못한 유족을 대신해 사고와 사망에 따른 장례 등을 지원했다.(조선대 제공)

직원이 기탁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낸 대표이사 "선의에 동참"

강진군민장학재단 수혜자 이자 오프너디오씨(주) 근무 중인 윤슬기 씨에 이어 황성민 대표이사 200만 원 기탁

지난 9일 오프너디오씨(주) 직원 일동을 대표해 황성민 대표이사가 장학금 200만 원을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이승옥)에 기탁했다.

오프너디오씨(주) 황성민 대표이사는 "회사 직원이 고향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 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기특하게 생각해 회사 전 직원이 동료 직원의 선의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프너디오씨(주)의 직원인 윤슬기 씨는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자로 학창 시절에 받았던 장학금 혜택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자 월급의 일부를 모아 올해 6월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승옥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장은 "회사 직원이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데 이어 다니는 회사 직원 일동 및 대표이사가 함께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며, "학창시절 장학금 수혜자가 직장인이 돼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고 말했다.

오프너디오씨(주)는 국제행사의 기획과 운영, 유치와 홍보 및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회사로 국제회의, 전시, 이벤트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기탁식을 위해 강진군을 처음 방문한 황성민 대표이사는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자연 풍광에 매료됐다며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에도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양시 중마동지역사회보장협 '사랑나눔'

정(情) 나누미 밑반찬 전달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광양시는 중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길오)에서 최근 '정(情) 나누미 밑반찬 지원 사업' 발대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밑반찬 지원에 나섰다.

중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명은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정(情) 나누미 밑반찬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복지사각지대 등 20명을 선정했으며, 협의체 위원들이 연말까지 주1회 가정 방문해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밑반찬을 전달한다.

박길오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관이나 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진 이웃을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다"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는 가족과 같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순기 중마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시는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중마동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학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아빠 살린 여중생

조대여중 1학년 박채이 학생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를 살렸다.

15일 조선대학교 여자중학교에 따르면 1학년 박채이 학생이 지난 6일 오후 7시쯤 방에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간 거실에서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다.

박채이 학생은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아버지는 72시간 만에 깨어났다.

송호성 조대여중 교장은 "교직원·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험·실습 중심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여수 여서동 · 주삼동 새마을남녀지도자 '깨끗한 버스정류장 만들기'

여수시 여서동과 주삼동 새마을회에서 우리 동네 깨끗한 버스정류장 만들기에 앞장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여서동새마을남녀지도자회원 20여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관내 시내 버스정류장을 일제히 청소했다.

이번 청결활동은 주요 도로변의 정류장의 먼지와 때를 제거하고, 불법광고물 제거, 표지판 이물질 제거 등 주변 환경도 함께 이뤄졌다.

정형돌 부회장은 "깨끗해진 버스정류장을 주민들이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결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생활소식을 실어드립니다"

안 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061) 792-0362 한국노총 순천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85-5293)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시스템 무상제공= 13세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 대상 긴급구조, 상담, 의료, 심리치료 (0062-232-1375)

▲생활상담 연구원 무료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개인, 주부, 가족폭력, 성, 청소년 고민 등(062-363-5599)

▲알코올상담 서비스 실시=인광알코올삼담센터 무료 알코올상담=술로인해 고통받는 사람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222-5666)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월~금요일 오전9시~오후 5시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전화 062-1331)

▲월 연탄 100장 기증 회원 · 연탄배달 회원(연10회)=1년 내내 자동이체 후원자 · 전남 거주자, 광주장애인사랑봉사회 연탄 100장으로 봉사 '광주본부 (522-8909)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장애인 체육 동회인 및 선수를 를 모집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상담전화(1577-7976)

▲빛고을 한사랑 회원모집=영아원 및 지체장시설 봉사에 뜻이 있는 20세 이상 남녀 (010-9974-9390, 문자환영)

▲제주 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전남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062-374-5885,010-2444-4500

▲남녀 배구회원 수시모집=수시(매주 월, 수, 금, 토요일) 광주 북구 일곡동 일동중 학교 문의(011-612-2112)

▲영상과 브레인 회원 모집=시나리오(8㎜) 스터티그룹, 웁저버, 드라마(구성작가) 등 공동창작활동 관심있는 사람. 20~30대 응모가능, 40대는 경력자

▲빛고을 한사랑 회원모집=영아원 및 지체장애시설 봉사에 뜻이 있는 20세이상 남녀 (010-9974-9390, 문자환영)

▲평동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직원 · 자원봉사자 모집=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미술 · 만들기 등 예능에 소질이 있는 분, 문의 062-363-5599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 스포츠,퀼트,팝 062-531-1769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시 비용 지원(132, 1577-8339)

▲광주 · 전남 MC품바 회원 모집=품바 배우실 분(010-4624-8787)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 채무상담=많은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잇는 45세 이상 남녀(019-601-6989) ▲신용사회만들기 무료 채무상담=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제주 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전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062-374-5885, 010-2444-45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회원모집=초급밥 : 화 · 수요일, 중급반: 월 · 수 · 금요일, 수강료 무료 문의(062-267-3700)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 스포츠,퀼트,팝 062-531-1769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시 비용 지원(132, 1577-8339)

▲광주 · 전남 MC품바 회원 모집=품바 배우실 분(010-4624-8787)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 채무상담=많은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잇는 45세 이상 남녀(019-601-6989)

▲신용사회만들기 무료 채무상담=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회원모집=초급밥 : 화 · 수요일, 중급반: 월 · 수 · 금요일, 수강료 무료 문의(062-267-3700)